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스포츠 외교전 첫발

김 지사, IOC 본부 방문  
전북·전주 중심으로 한  
올림픽 유치 전략 설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클린다 그라버르키타로비치 IOC 미래유치위원장 등과 만나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을 피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국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클린다 카타로비치 미래올림픽유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북 중심의 유치 비전과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관계자도 함께하며 국제스포츠계와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방문은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첫 국제 행보다. 김 지사는 전북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 도시 간 협력형 개최 모델을 제안하며, 'Greener, Greater Together(지속가능하고, 함께여서 더 위대한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전북은 기존 대도시 중심의 개최에서 벗어나, 인구 180만의 지방 소도시들이 협력해 대회를 치르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교한 전략과 도시 간의 연대로 소도시도 세계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개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과도한 개최비용 문제로 인해 최근 개최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모델이 향후 세계 각국의 새로운 개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IOC가 중시하는 '올림픽 야전다 2020'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대회 유산을 반영한 전북의 전략도 면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지사는 'Together in Unity, Beyond Limits(연대 속 도전, 한계를 넘는 가치)'라는 메시지 아래, 친환경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 전통문화 연계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개최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전북은 대회에 필요한 경기장의 95%

를 기존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임시 시설(모듈형 목재 구조)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대회 운영 전력은 전량 재생에너지(RE100)로 충당하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올림픽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으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전북이 '기후중립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전북은 새만금, 전주, 동부권 등 도내 도시들과 연대해 경기와 문화행사를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기 준비, 운영, 문화 행사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올림픽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어, 전북은 스포츠 중심의 대회를 넘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문화올림픽'으로 확장할 전략

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 마을, 국악, 전주비빔밥 등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K-컬처와 K-FOOD의 중심지로, 이러한 자산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대회 기간 동안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통문화와 K-POP, K-FOOD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문화 콘텐츠로 'K-컬처 올림픽'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 이후에도 그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라키비움위원회(Larchivium Committee)' 설치를 예고했다. 이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개념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올림픽 관련 자료와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김 지사와 유승민 회장은 이번 IOC 방문에서 유치 절차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전북이 제시한 전략이 IOC 기준에 부합함을 설명했다. 향후 IOC, 국제경기연맹 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공감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세계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밧그림 그리기 돌입

익산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서 전문가 논의  
식품산업 역사·미래 담야

익산시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밧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의회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했다.

식품박물관은 식품의 역사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담아낼 종합박물관으로, 익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식품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에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법률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건립 목적 및 필요성 △건립 추진·운영 계획 설정 △기대효과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철저한 논리 개발과 타당성 확보를 통해 관련 부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립식품박물관은 익산시가 케이(K)-푸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라며 "체계적이고 면밀한 용역 수행을 통해 국립식품박물관이 익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투자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국내 기업 유치만으로는 한계”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자치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전담하는 투자청 설립이 다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개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북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국내 기업

유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투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의 특성상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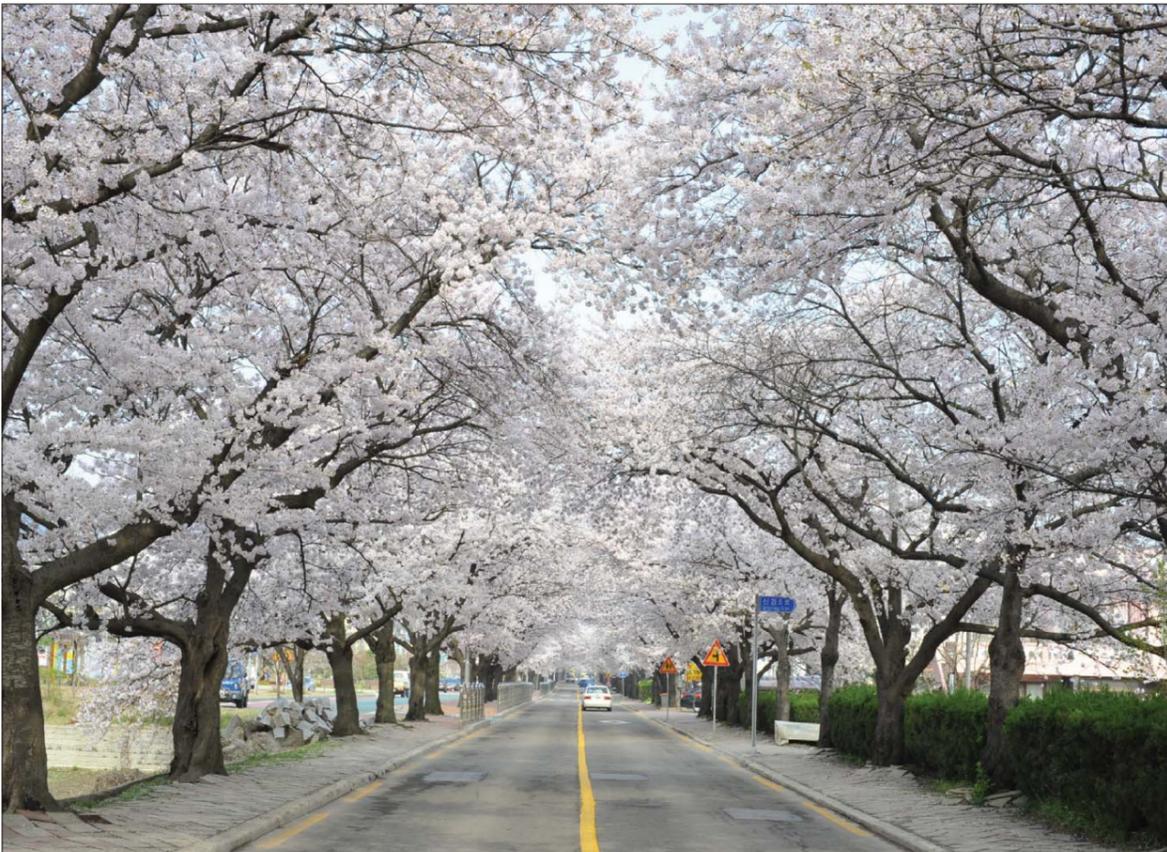
첫째,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 관리

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투자 동향 정보를 취득해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 관련 행정 업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전북으로 진출 의향 기업들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기

업 및 자본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기업의 직접 투자 및 자본의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인재와 국제 행사 유치 업무까지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자본-기업이 모이는 전북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투자청 설립 이유로 들었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

원은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유학생 등을 포함한 이민, 금융 투자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 다수의 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해외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및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유학생 등의 인재를 유치하는 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 시민 중심, 으뜸 정읍

### 2025년 정읍시 핵심 운영 방향

1.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 경제 도시**
2. 하루 더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3. 미래기반산업 육성으로 앞선 **첨단 도시**
4. 도농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도시**
5. 삶에 온기를 더하고 누리는 **건강한 도시**
6. 사람중심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도시**

